

## 8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노래자랑 강화군편

이달 25일 (화) 오후 2시, 강화공설운동장 개최  
현숙, 박상철, 김국환, 류지광 인기 트로트가수 총출동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KBS 전국노래자랑 강화군편**

2023. 4. 25. (화) 오후 2시  
강화공설운동장

MC 김신영

현 숙 박 상 철 김 국 환 류 지 광 강 소 리

문의 |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625  
주최 | 강화군 주관 | KBS

### 참가신청

접수기간 2023. 3. 27. (월) ~ 2023. 4. 14. (금)  
※ 주말 제외 / 선착순 300명 모집  
참가대상 강화군민, 강화군 소재 직장인, 학생 등  
접수방법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예 심

예심일자 2023. 4. 23. (일) 오후 1시~  
예심장소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  
※ 접수증(본인 보관용) 지참

### 초대가수



문의 |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625

주최 | 강화군 주관 | KBS

KBS 전국노래자랑 강화군편

KBS 1TV의 전국노래자랑 ‘인천광역시 강화군 편’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강화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강화군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건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예선 심사는 4월 23일 오후 1시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5개 팀을 선발한다.

예심은 14일까지 군민은 물론 군 소재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누구나 평일 근무시간 내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예심 당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운영되는 현장 접수대를 통해서도 참가 가능하다.

본선 녹화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강화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본선 진출팀의 노래와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또한 김신영 MC의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현숙, 박상철, 김국환, 류지광 등 인기 트로트 가수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장식한다. KBS 1TV를 통해 6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8년 만에 열리는 KBS 전국노래자랑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잠재된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시고, 농번기 철썩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 총력 강화군, 전년대비 491억원 증가한 2,303억원 확보 계획



간부회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천호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국고보조금 1,812억원(본예산 기준)보다 491억 원이 증가한 402개 사업, 2,303억원을 확보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특성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음연도교 건설사업 ▲농업용 배수개선 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행자 복합인지 플랫폼 구축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사업 등을 발굴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발굴한 75개 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국정과제 및 인천시의 투자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한 사업 설명하는 등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때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획한 사업들이 2024년도 정부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세일즈 행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 강화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교동, 서도 등 168억원 투입, 없는 길도 만들어간다!



연도교 조감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천호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화군은 올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19개 사업, 총사업비 168억원(국비 135억원, 지방비 33억원)을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주문도·불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30억원)



화개산전망대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28억원)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5억원) 등이 있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20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강화군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접근성 개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 등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각 사업마다 차질 없는 준비, 신속한 사업추진, 조기사업 완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갑룡어린이공원 2단계 조성 완료' 현장 점검



갑룡공원 어린이공원 현장확인

공존이 어우러지는 '복합힐링공간'을 주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면적 7,051㎡ 규모, 사업비 총58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왔다.

공원은 어린이들의 전용 놀이공간과 주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운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 놀이공간에는 아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물놀이터, 6인용 그네, 경사오름 등을 설치하였고, 미취약 아동을 위한 모래놀이터 등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쉼터와 야외 운동 기구를 조성하였으며 수목을 따라 걸으며 힐링 할 수 있는 산책로 등도 설치되어 있다.

유천호 군수는 공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공원 내 시설물, 수목 식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공원 개장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갑룡어린이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5월 임시개장을 위해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으며, 6월중 정식 개장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갑룡어린이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강화군 역점사업으로 모험과

# 강화군,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공원관리



관청공원



남산공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를 한다.

2020년 갑룡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남산, 관청 공원이 개장하면서 공원은 건강과 휴식,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원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군은 지난달 공원 관리, 야간 순찰 등을 위한 공원관리원 공개채용을 실시해 지난 3일부터 총 14명의 공원관리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유지를 위해 업무를 시작했다.

공원 관리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공원 내

식생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점검과 보수, 청소, 방제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오는 10월까지 수행한다.

군은 공원관리원 14명에게 직무 배치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선별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및 보건 조치 등을 교육했다. 특히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안전보호구 착용, 예초기 사용법 등을 진행했다.

유천호 군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에서 지친 일상에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 강화군의회 포토갤러리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선원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제21회 고인돌클럽회장배 전강화동호인 테니스대회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식

## 강화군, '모자건강교실' 4일 첫 수업 모유수유 교육·오감발달놀이, 베이비 마사지 등 교육 진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일부터 강화군 보건소 1층 모자 교육실에서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 건강교실(모유 수유교실, 해피맘 육아교실)'을 운영한다.

모유 수유교실은 임신부 및 수유부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월 4회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출산 전·후 임신부의 건강관리와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행복한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모유 수유의 중요성 ▲산후 건강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해피맘 육아교실은 4~2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영유



2022년 해피맘 육아교실

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총 3개 반으로 나누어(4~6개월반, 7~11개월반, 12~24개월반) ▲베이비 마사지 ▲오감발달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월 4회 진행된다.

모자 건강교실은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주 2회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더욱 오래갔으면 좋겠어요!”와 같은 의견들이 나올 만큼 임신부와 육아 중인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강화군 보건소 인기 프로그램이다.

교실 운영은 4월~7월, 9월~11월 동안 총 56회 운영하며 매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그밖에 강화군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을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풍진 항체 검사 등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에게는 임신 초기 검사, 엽산제·철분제 제공 등 임신·출산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자 건강교실이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 행복한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임신부 및 영유아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도로변 화단 곳곳에 봄꽃 4만본 단장 완료



강화 도로변 봄꽃식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3월부터 48국도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 화단 곳곳에 초화 식재로 거리를 단장했다.

군은 봄을 맞아 팬지, 리빙스틴데이지, 스톡 등 봄꽃 4만 본을

식재해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겨우내 삭막했던 도시경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각 읍·면에서도 마을 곳곳 봄꽃 식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군 전역에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한편 군은 오는 11월까지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과 화단 등에 계절마다 초화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무궁화, 쉼터 등에 주기적 관수, 제초 등 작업을 통해 건강한 생육환경 유지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는 수도권에서 가장 다채로운 관광 포인트가 있는 명소로 많은 볼거리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 녹색공간도 함께 감상하면서 지친 마음의 힐링을 얻고, 가족, 친구, 연인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5월 13일까지 6주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 소 21,964두, 염소 1,434두

# 강화군, 상반기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 모니터링 실시



구제역 백신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을 제외한 363농가(21,964두), 염소 72농가(1,434두)다.

군은 구제역 일제 접종에 맞춰 농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

2.4톤을 일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

스트레스 완화제와 소독약품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50두 미만 영세 사육농가) 또는 축협(50두 이상 전업 사육농가)에서 수령하면 된다.

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후 1달 이내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소 80%, 염소 60%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실시하는 등 항체형성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예방을 위한 일제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며 "구제역 항체형성률 관련 행정처분이 철저해진 만큼 빠짐없는 백신 접종,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준수(2개월령 1차, 3개월령 2차, 이후 6개월 간격 추가 접종), 농장 내 소독과 차단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엄정대응'



번호판영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21일 사전 영치 예고문 1,603건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액 체납액 및 체납건수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위주의 단속 실시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도 해당된다.

군은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4월 25일 ~ 5월 5일까지 적기 못자리 설치 기간 현장지도



못자리 치상

냉해, 입고병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못자리를 할 때 볍씨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자리에서부터 병이 발생하거나 이앙 후 본 논에서도 병이 퍼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종자소독은 키다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종자로 전염되는 곰팡이 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묘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작업으로 고품질 강화섬 쌀 생산의 첫걸음이다.

소독방법은 약제 침지소독과 온탕소독이 대표적이다. 약제 침지소독은 볍씨 20kg당 약액 40L를 기준으로 30~32℃의 물에 48시간 소독해야 효과가 높다. 온탕 소독은 마른 볍씨 20kg당 200L의 60℃ 물에 10분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적기 못자리 설치 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최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지만 초상 온도(땅 위에 접해 있는 풀 위의 공기 온도)는 오히려 전년보다 낮아 영농시기를 적정한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못자리를 조기에 설치할 경우 매년 4월 중순경 발생되고 있는 저온에

소독 후 흐르는 찬물에 10분간 냉수 처리한 다음 싹을 틔워 파종해야 한다.

볍씨 파종은 10a당 30상자 기준으로 상자 당 120~150g 정도 파종하여 적정 모수를 확보해야 한다.

군은 벼 보급 종 및 기능성 특수미 218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올해 설치될 못자리 면적은 78ha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강화군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번기 맞아 '농촌일자리 지원센터' 집중 운영



농번기 일자리 지원 집중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일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4월부터 10월 까지 '농촌일자리 지원센터'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농촌 일자리 무료 중개 사업인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작업 일정, 작업 내용, 필요인력 등을 신청받아 농가의 구인 수요 데이터를 만들고, 농작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농작업 인력 풀(pool)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구인 농가와 구직자 간 효율적인 중개를 진행한다. 강화군은 농번기 '농촌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농업 분야 고용 창출 및 농가 일손부족 경감,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인 농가와 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중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 일자리 구인 및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문의 ▶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32) 930-4112/4115 - 최백하기자



소창체험관 문화행사



**‘소창으로 소풍가자!’**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5회 예정

## 보자기 특강, 문화공연, 플리마켓, 차 시음회 등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5일부터 소창체험관에서 참여형 문화 행사「소창으로 소풍가자!」를 개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창 제품 위주의 ‘플리마켓’과 말차, 보이차 등을 직접 시음해 볼 수 있는 ‘들차회’, ‘보자기 특강’과 다양한 음악과 마술 등의 ‘문화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 선생님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보자기 수업’은 종이 포장지를 대체하여 보자기를 사용하는 일상속 제로웨이스트의 실천의 장이 되고 있다.

소창체험관은 강화의 직물산업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지난해 6월 ‘소창으로 소풍가자’

행사를 처음 시작했으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신선한 볼거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5회 예정되어있다. 혹서기인 7,8월은 제외된다.

현재 소창체험관은 소창스탬프체험, 한복체험, 직조시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소창바느질체험’을 신규 개설하여 체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화읍 원도심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7시, 총 30회 강화군가족센터, ‘K-POP 댄스’ 운영



강화군가족센터 'K-POP 댄스'

강화군가족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4일부터 ‘K-POP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POP 댄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래와 안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외와 고립을 방지

하고, 친구들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성을 배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오는 11월 25일까지 총 30회 운영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센터 회원들이다.

‘K-POP’ 프로그램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연계 사업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강화군가족센터(032-932-1005)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K-POP 방송댄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 활동으로, 센터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읍·면 74개 팀 참여 노인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개최



제 16회 노인회장배 게이트볼대회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지회장 장기천)는 지난 31일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제16회 강화군 노인회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의장, 박용철 인천시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가 주최하고 강화군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74개 팀 500여 명의 선수와 관객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장기천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본 대회를 통해 읍면 및 회원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축사에서 "모두가 완전한 봄기운을 즐기며 화합과 추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게이트볼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 제18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 4년 만에 펼쳐진 어르신들의 축제



강화게이트볼 대회



게이트볼 경기모습

1. 강화도 전등사(주지 여암스님)는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8시부터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공설 운동장에서 「제18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였다.

2. 오전 10시 개막식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 전등사 회주 장운스님, 유천호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장기천 강화군 노인회장, 유춘규 강화게이트볼연합회 회장, 박용철 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김수희 BS종합병원 장례식장 대표, 손권용 해강개발 대표, 박 명구 강화씨사이드리조트 이사 등 3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3.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은 대회사에서 '18회를 맞는 이 대회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서 '오늘도 공정하게 운영하는 심판진과 매끄럽게 진행되는 운영진과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인정하는 선수들이 각자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 이날 대회에는 82개 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 끝에 지석A 팀이 우승, 난정2B 팀이 준우승, 공동 3위에는 인사A 팀과 난정2A 팀이 차지하였다.

5. 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은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대회가 중단될까봐 걱정을 했다.'면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가 게이트볼대회가 유일하다. 내년에도 전등사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겠다.'라며 즐거워했다.

6.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무료진료와 주 재희 약손봉사단 발마사지, 강화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체험은 바람이 세계 불어 부스를 설치하지 못해 진행할 수 없었다. 전등사에서는 국밥과 수육, 어묵탕, 부침개, 떡, 과일, 음료를 준비하여 대회 참가자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기념모자 1,000개를 선물로 전달했다. ▣



## 작가와의 만남, 마술쇼, 동화 콘서트 등 ‘흥미가득’ ‘4월 도서관주간’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도서관 주간’은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생활을 유도하는 기간이다.

강화 도서관은 △전래동화 콘서트 △나만의 책방 모빌 만들기 △책속 미니어처 케이크 연필꽃이 만들기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혜의 숲 도서관에서는 △‘책방 속 마법 우체국’ 마술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다린 작가, 김보람 작가) △‘당근 유치원’ 원화 전시를 운영한다.

또한 ‘연체자지만 괜찮아’라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기간 내 대출이 정지된 회원에게도 정지 면제의 혜택을 준다.

제59회 도서관 주간 표어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에 걸맞게 도서관별로 특색 있게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 희망 시 강화군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4월 도서관 주간 행사’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다양한 문화행사를 대면 형식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친숙한 도서관이 정착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

문의 ▶ 강화도서관 ☎032) 932-8264

지혜의숲도서관 ☎ 032) 934-8273



**강화도서관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안내**

경계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

**원화 전시**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이해원 작가-  
 일시: 4.5(수요일) ~4.30(일요일)  
 대상: 강화도서관 이용자  
 장소: 강화도서관 1층 로비

**연체자 특별 면제**  
 <연체자지만 괜찮아>  
 -연체자 대출정지 기간 면제-  
 일시: 4.12(수요일) ~4.18(화요일)  
 대상: 대출도서 반납 완료한 연체자  
 접수: 강화도서관 1·2층대출대 방문 및 전화



**체험 행사**  
 <나만의 책방 모빌 만들기>  
 -권미향 강사-  
 일시: 4.9(일요일) 14:00~16:00  
 대상: 성인 10명  
 모집: 4.1(토)~4.8(토)-도서관 방문 및 전화  
 장소: 강화도서관 3층 문화교실  
 재료비: 7,000원(당일 납부)

**전래동화 콘서트**  
 <얼피구, 좋다!>  
 -밴드 반 BAND PAN-  
 일시: 4.23(일요일)  
 ▶1회(15:00~15:50)  
 ▶2회(16:30~17:20)  
 대상: 전연령 120명  
 [1회 공연 60명, 2회 공연 60명]  
 모집: 4.1(토)~4.22(토)-도서관 방문 및 전화  
 장소: 강화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  
 관람료: 무료  
 \*재미난 전래동화들을 흥겨운 음악과 함께\*

**체험 행사**  
 <미니어처 케이크 연필꽃이 만들기>  
 -권미옥 강사-  
 일시: 4.16(일요일) 10:00~12:00  
 대상: 초등 1~6학년 15명  
 모집: 4.8(토)~4.15(토)-도서관 방문 및 전화  
 장소: 강화도서관 3층 세미나실  
 재료비: 5,000원(당일 납부)

문의 932-8264

## 강화군 “이어가게를 찾습니다!”

인천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오래된 가게 발굴  
4.3~ 5.8일 모집, 환경개선비(5백만 원)와 홍보·마케팅 등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강화군·옹진군·서구 일대 지역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이어가게’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4회째를 맞는 이어가게 선정 사업은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

10곳을 선정한다.

이어가게로 선정되면 시에서는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돕는다. 또한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문학이발관’, ‘송도식당’, ‘이화한복’ 등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의 이어가게 10곳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알려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어가게라는 명칭은 시민공모를 통해 정한 이름이다. 대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가게가 그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오래된 가게를 뜻하는 인천만의 고유 명칭이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 440-4228

- 권주형 기자

직하고 고유한 특색을 지닌 30년 이상의 오래된 점포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마지막 권역인 강화군·옹진군·서구 지역에서



## 결혼이주민 정착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와 다양한 지원 노력 강화경찰서, 결혼이주민 대상 '해피빵빵 제 12기' 개강



강화경찰서 '해피빵빵 제12기'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양동재)는, 지난 5일 강화군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등 대상 다문화 운전면허교실 '해피빵빵 제 12기 교육'을 개강했다.

강화서에는 매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벌써 12기 수강생이다.

올해 교육은 10회차 구성되어있으며, 4.5(수)~5.4(목)까지 매주 수·목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필기·실시 관련 비용은 강화서, 강화군청의 전액 지원으로 무상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총 4개국

언어로 된 교재를 선정하여 제공했으며, 수강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를 활용하여 문제위주로 강의하며 필기시험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강생 베트남 이주여성은 “주변에서 운전하는 동료들을 보며 부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꼭 운전면허 따서 강화지역 곳곳을 운전하며 다니고 싶다”며 합격의 포부를 전했다.

양동재 서장은 “결혼이주민 등 다문화가정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치안에 더욱 힘쓰고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대표로 참가 한국글로벌세프고, 인천지방기능경기대회 동상·장려상 수상



글로벌세프고 수상사진

인천 유일의 조리전문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교장 송수익)가 '2023 인천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4월 3일~5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천지사에서 실시한 이번 대회에서 요리 부문 박정현(2학년) 학생이 동상, 이재상(3학년) 학생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동상 수상자인 박정현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를 하였는데, 준비 시간이 짧아 살짝 아쉬움은 있었지만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활짝 웃었다.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에 일반고에서 조리 단일 학과로 전환 이후로 해마다 지역 및 전국대회에서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망주 학교이다.

송수익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회에 준비한 덕분이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금, 은, 동상 입상자 학생들은 올 10월에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인천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전 경험을 통해 조리 분야의 전문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 ▣



## 한의학 건강교실 운영..한의사와 함께하는 참여형 수업 강화군, 한의학으로 건강 챙기세요!



한의학 건강교실\_침향단만들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4일부터 강화군 행복센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학 건강교실은 오는 6월 9일까지 격주 금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따스한 봄날, 관절 건강 지키기 ▲한의학으로 몸과 마음

다스리기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기 ▲한의학으로 당뇨 다스리기 ▲한방 체험하기 강의를 차례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한약재를 소개하며, 실제 한의원에서 증상에 따른 한약재 사용법 등 한약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침향단 만들기, 한방차 만들기 등 한약재를 이용하여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한방 체험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원인과 일상생활에서 악화를 막는 방법을 교육하며, 예방을 위해 한의사와 함께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진행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강의가 끝난 후 한의사가 개인 맞춤형 건강 문제를 상담해 주고, 더 좋은 건강습관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 한의학 건강교실에 참여한 주민은 총 500명으로 1회당 약 50명의 인원이 건강교육을 들었다. 특히 체험형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

## 강화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도서지역 서비스 순회 진행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도서지역 순회서비스’를 진행하며, 섬 지역 주민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군은 2021년 11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화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관내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수도꼭지, 손잡이 교체, 방충망 보수 등 5만 원 이하의 생활불편사항을 무상으로 방문 수리하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셋째, 넷째 주에 서도면과 삼산면 미법도를 방문해 총 24가구 65건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해당 면사무소와 협조를 통해 도서 지역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필요시 언제든지 달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총 824가구 207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난해 목표 건수 800건 대비 259%를 초과했다.

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생활민원을 대비해 올해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신속하게 기동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선제적 기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강화읍사무소 보건복지 상담실, ‘복지\_알리고 건강\_올리고’서비스 진행



강화읍사무소 보건복지 상담실

강화군 강화읍(읍장 주우종)이 매주 수요일 14시에 읍사무소 1층 보건복지 상담실에서 ‘복지\_알리고, 건강\_올리고’ 서비스를 진행한다.

‘복지\_알리고, 건강\_올리고’는 강화읍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 및 군청 복지정책과, 보건소,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팀이 되어 복지와 건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강화읍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며, 다양한 보건·복지욕구를 파악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같은 건강 검사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바우처 등 복지 상담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주우종 읍장은 “위 사업은 기관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연계·협력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기고

이경수

## 불교와 사찰 이야기



전등사 대웅보전

오늘은 신라 원효대사(617~686)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원효가 불교 공부를 더 하려고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밤이 되었고 주변에 집은 없고 그래서 토굴로 들어가 잡니다. 중간에 목이 말라 깬 원효, 마침 곁에 물이 담긴 바가지가 있기에 벌컥벌컥 마십니다. 아~, 달다. 다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옆에 해골이 있는 겁니다. 으악!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구나.’ 알게 된 순간, 바로 오바이트 신호가 왔습니다. 껍껍 토해내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해골에 고인 물을 생수라고 여기고 마셨을 땐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배앓이도 하지 않고 잘 잤습니다. 그런데 해골바가지 물임을 알게 된 순간 몸이 따라 반응해서 토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구나. 형식, 절차, 학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깨달았으니 중국에 갈 필요가 없다!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접고 경주로 돌아갑니다. 의상대사 홀로 당나라로 갔습니다.

원효는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원효로 인해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의 주요 업적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꼽는 것입니다. 당시 불교는 불경 공부를 중시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니 불경을 읽을 수 없었고 그래서 진정한 신자가 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불교가 지배층의 종교였던 것이지요.

원효와 백성들의 대화를 가정해봅니다.

“부처 섬기시오.”

“스님, 저희는 글을 모릅니다.”

“괜찮소,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되오.”

“저희가 어찌하면 됩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오.”

참 어려운 불교를 참 쉽게 만들어준 이가 원효인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원효의 업적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거리 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부처 말씀을 전하니,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까지도 모두 부처를 알게 되고 나무아미타불을 칭하게 되었으니 원효의 가르침이 컸다.”

나무아미타불은 한자로 南無阿彌陀佛입니다. ‘남무(南無)’를 ‘나무’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남무(南無)’는 귀의합니다, 믿습니다, 섬깁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도 있잖아?” 그렇죠. 관세음보살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관세음보살’을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관음보살은 지금 이 세상을 보살펴주고 아미타불은 죽은 이후 세상을 돌봐주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은 아미타불에게 빌고 무병장수는 관음보살에게 비는 것이랍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이나 우리는 다 부처님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이론상은 격이 다릅니다. 보살에서 한 단계 더 오르면 불(부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웅전(大雄殿)과 대웅보전(大雄寶殿)에 모시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상

부처님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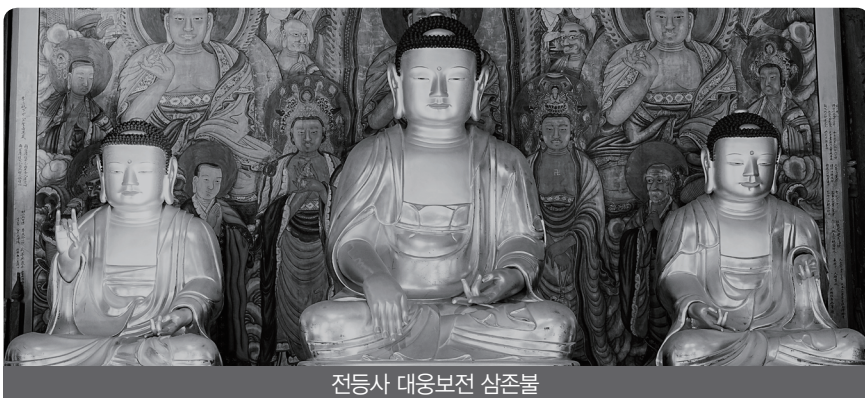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대개 대웅보전은 불(佛), 불(佛), 불(佛). 세분 모두 부처님을 모십니다. 전등사 법당이 대웅보전인데요, 그 안에 삼존불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입니다. 적석사는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불(佛) 한 분에 보살 두 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적석사 대웅전 삼존불은 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세지보살입니다. 대웅보전은 불·불·불! 대웅전은 불·보살·보살!

어느 사찰에서든 모신 불상을 보고 부처인지 보살인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부처는 머리 모양이 보글보글 파마머리 모양이고요, 보살은 화려한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존불이 모두 파파머리 모양이면 불·불·불, 대웅보전입니다. 파파머리 한 분에 모자 쓴 두 분이면 불·보살·보살, 대웅전입니다. 다만, 여러 보살 가운데 지장보살은 스님처럼 머리를 깎은 모습입니다.

청련사는 대웅전, 대웅보전 다 아니고 그냥 한글로 '큰법당'이라는 현판을 달았습니다. 큰법당 안에 파파머리 한 분, 모자 쓴 두 분을 모셨어요. 불·보살·보살, 그러면 대웅전 격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아니고,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곳은 극락전, 무량수전, 미타전 등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청련사 큰법당은 극락전 정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청련사에 1m 크기의 철불도 있었다고 해요. 철불이면 고려 시대 불상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1961년에 청련사 주지가 이 철불을



전등사 대웅보전 삼존불

누구에겐가 돈 받고 팔았습니다. 경향신문(1961.12.15.)은 '부처를 판 스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백련사 법당 이름은 '極樂殿'(극락전)입니다. 현판을 보면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련사에도 아주 귀한 철불이 있었습니다. 철로 만들어 금을 입힌 '철조아미타여래좌상'입니다. 1989년 4월에 보물로 지정됐는데 그해 12월에 도난당했습니다. 도둑이 들어 훔쳐 간 겁니다. 30여 년 지난 지금도 그 행방을 모릅니다.

마리산 산불이 정수사까지 삼키기 전에 진화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평소, 마리산 저 높은 데까지 함부로 깎아내고 밀어내고 지은 집들을 보면서 단군께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또 죄송했습니다.

정수사 법당은 대웅보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불·불·불'이어야 하는데... '불·보살·보살·보살·보살' 삼존불이 아니라 오존불입니다. 불상 앞에서 보아 왼쪽부터, 지장보살·보현보살·석가모니불·문수보살·관세음보살을 모셨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성'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느 상황에서나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보문사는 어떠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독교, 천주교는 천당으로 가는 통로이고 불교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도들은 천당이나 깨달음보다도 현생의 복을 더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 건강, 성공, 대학합격, 취업 등 현실적으로 더 절절한 바람을 품고 사원을 찾습니다. 세상에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늘 존재하는 법인데 종교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현재의 복을 소망하며 절에 가는 이들은 관음보살을 찾기 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3대 관음 성지가 있습니다. 강화 낙가산 보문사,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경상남도 남해군 보리암입니다.

인도 남쪽 해안의 보타낙가산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관세음보살을 모신 유명 사찰은 바닷가 가까이 있습니다.



정수사 대웅보전 오존불

보문사는 서해, 낙산사는 동해, 보리암은 남해입니다. 보문사를 품은 산 이름이 낙가산인데 관세음보살이 계시다는 인도의 산이 보타낙가산이라니까 거기서 이름을 따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관음성지라는 보문사 법당은 대웅전이 아니고 대웅보전도 아닙니다. 관음보살을 모셨을 테니 관음전인가? 아닙니다. 극락보전(極樂寶殿)입니다. 주불로 아미타불을 모신 겁니다. 물론 협시불로 관음보살도 모시기는 했지만, '관음성지'와 '극락보전'은 웬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극락보전 뒷산 눈썹바위에 관음보살이 계십니다. 바로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상'입니다. 앓은 모습인데도 높이가 9미터가 넘습니다. '마애(磨崖)'는 돌벽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미술 용어로 비유하면 '마애'는 환조(丸彫)가 아니라 부조(浮彫)입니다. 돌계단 꽤 힘들게 올라야 함에도 많은 이가 마애관음보살상을 찾아 절을 올립니다.

절은 절할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광도 가고 답사도 가고 홀로 마음 청소하러 가기도 합니다. 절을 보고자 하는 이가 있고 절 품은 숲을 보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가쁜 숨 몰아쉬며 보문사 눈썹바위에 오르는 건 바다까지 보려는 것입니다. 관음보살과 함께 저 아래 바다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 등을 도닥여줍니다. 바람인가, 관음보살인가. 문득 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



## 기고

## 망하는 길



김 학 준

지난달 강원도 영월에 있는 조상묘 시체를 지내기 위해 충북 제천을 통해 영월로 가는 길이였다. 제천~영월 간 도로는 분명 국도인데 고속도로 수준이다. 아니 그 이상이라 해도 크게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이 강원랜드(카지노)가 있는 정선군 사북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차에 동석한 숙부는 “이 길은 강원랜드로 가는 교통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부는 “일종의 ‘망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면서 웃었다. 지난해만 강원랜드 주변에서 8명이 자살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에 중독돼 재산을 탕진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2000년 10월 개장됐다. 국내에 17곳의 카지노가 있지만 16곳은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다.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하지만 카지노 개장 이후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환급률은 73%. 쉽게 말해 100만원을 걸면 73만원만 돌려받는다. 단기간 게임을 하면 몰라도 장기간 몰입하면 귀신도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다. 적당히 이용하면 건전한 레저라는 달콤한 얘기도 있지만, 중독자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돈을 잃고 심신도 폐해해졌다. 그리고 카지노 측이 챙기는 27%의 절반 가량은 세금으로 나간다. 국가에 공헌하고 싶으면 카지노를 열심히 하면 된다.

강원랜드 직원들의 임금은 유력 대기업 못지않는데, 따져보면 카지노 이용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워낙 물이 좋아 입사하려면 실력만으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돌며, 이를 입증하듯 인사비리가 여러 번 불거졌다.

게다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해괴하다. 멀쩡했던 사람이 몇달 만에 재산을 거덜내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한쪽에서는 전당포·술집 등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여염집 아낙네가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파는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외지인은 물론 재력이 별로 없는 현지 주민들까지 카지노에 취하면서 강원랜드는 대박을 내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2707억원, 영업이익은 2186억원이다. 2020~2021년 코로나 사태 여파로 부진했지만 지난해 완전히 회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더 상승세다. 1~2월 방문객이 하루 평균 7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2%,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17% 상승한 수치다.

이에 힘입어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을 확장할 방침이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 착공해 내년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레스토랑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카지노 영업장으로 바뀌면서 카지노 면적은 현재 1만4053㎡에서 1만5486㎡로 약 10% 늘어난다. 하지만 덩달아 카지노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걱정이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들은 카지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명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대효과가 크다는 점을 내세운다. 카지노는 부가가치가 높고 집객효과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커 관광산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되는 ‘앵커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카지노에 목을 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심지어 카지노가 외자유치의 촉매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외자유치와 카지노의 상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 게다가 강원랜드를 제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제주 8곳, 서울 3곳, 부산 2곳, 인천·대구·강원 각각 1곳) 중 흑자를 내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내막을 알고 보면 카지노 찬양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신기루인 것이다. 카지노 유치가 마치 지자체의 미래를 담보하는 장밋빛 전략처럼 치부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카지노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외국인 돈은 함부로 거덜내도 되는가. 게다가 외국인용 카지노가 기대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슬그머니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점용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우려도 상존한다. 경주 보문 단지에 있던 카지노는 외국인 입장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내국인들을 입장시켜 적발되기를 거듭하다 지난 2008년 문을 닫았다.

수도권에서는 도박(노름)이 성행하면서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박은 일명 ‘하우스’로 불리는 곳에서 이뤄지는데, 강원랜드가 허가받은 도박장이라면, 하우스는 불법 시설 도박장이다. 주로 빌라나 단독주택 등에 마련된 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역 병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녀자들까지 도박 대열에 가담하면서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박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지만, 근래 들어 배금사상과 결합된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CCTV를 통해 이를 알아챈 도박장 측이 증거를 없애버려 허탕을 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CCTV가 지난날 도박장을 지키던 ‘망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이용료가 고액이어서 도박장 개설자 외에는 도박에 가담한 사람 모두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박의 구조”라면서 “경찰력만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이동상담소」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군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군민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운영되는 '이동상담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치료연계 및 1:1 맞춤형 서비스연계 등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검진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해 노인 우울예방프로그램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음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음에도 편견 등으로 상담 받기를 꺼리고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접근이 용이한 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 기관 등을 순회하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방문 일정은 일주일 전 해당 기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힘들 때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터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음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 932-4093



강화터미널 「이동상담소」 운영

## 강화에서 도보여행, 강화나들길 워크온 챌린지 '제1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 시작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1일간 나들길 활성화를 위한 '제1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를 실시한다.

강화나들길은 역사 유적뿐 아니라 자연 생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20개 코스로 이뤄진 도보여행길이며, "발밤발밤" 부사어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양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번 챌린지는 월별 1개 코스를 선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 진행된다. 4월 첫 챌린지 구간은 강화의 중심부를 걸으며 문화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강화나들길 제1코스(심도역사 문화길)가 선정됐다.

강화나들길 1코스는 고려궁지, 대한 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산성, 연미정 등 역사와 문화의 명소를 만날 수 있다. 1코스 8개소 중 5개소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하면 300명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챌린지 참여로 건강도 챙기고 강화 구석구석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제1탄

#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

|             |                                      |                              |
|-------------|--------------------------------------|------------------------------|
| <b>참여기간</b> | 2023. 4. 3.(월) ~ 4. 23.(일)           |                              |
| <b>참여코스</b> | 강화나들길 1코스(강화버스터미널 ~ 갑곶돈대)            |                              |
| <b>참가자격</b> | 강화나들길 이용객 누구나 참여가능 (스마트폰 소지자만 참여 가능) |                              |
| <b>당첨혜택</b> |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5,000원 문화상품권 지급  |                              |
| <b>참여방법</b> | 「워크온」 모바일 앱 설치 및 가입                  |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 선택 후 참여 |
|             |                                      | 스탬프 8개 중 5개 이상 획득시 응모가능      |

강화군





#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